



차태현표 코미디 기대되시죠?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내달 4일 개봉
유재하 음악 모티브 "헌정영화는 아냐"
두번째 빙의 연기 "전작과는 달라요"

“저도 요즘에는 연 기변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악역도 한번 해이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차태현(40·사진) 하면 ‘차태현표 코미디’가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엽기적인 그녀’(2001), ‘과속스캔들’(2008), ‘헬로우 고스트’(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012), ‘슬로우 비디오’(2014) 등 주로 휴먼 코미디 영화로만 필모그래피를 채웠기 때문이다.

내년 1월 4일 개봉하는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의 전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휴먼 코미디다.

천재 작곡가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임신한 여고생, 이혼 직전의 형사, 순정파 노총각 교사,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치매 노인의 몸매 차례로 빙의해 이들에게 찾아온 사랑의 위기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다. 차태현은 작곡가 이형으로 출연해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한다.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차태현은 자신의 연기에 대한 고민 등을 솔직하게 털어냈다.

이미 전작 ‘헬로우 고스트’에서도 빙의의 연기를 선보인 그가 또다시 빙의의 소재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저 역시 ‘헬로우 고스트’와 비슷하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시나리오에 그다지 끌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유재하 음악을 영화에 사용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죠.”

이 영화는 애초 유재하의 음악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유재하에 대한 헌정영화는 아니지만, 그의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와 ‘지난날’ 두 곡이 영화 속에 삽입됐다. 각 에피소드의 갈등이 해결 될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가 흘러나온다. 차태현은 엔딩 타이틀인 ‘지난날’을 직접 불렀다.

차태현은 “‘헬로우 고스트’ 때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빙의돼 연기했는데, 이번 작품은 다른 배우들이 제 모습을 연기해서 좀 달랐다”면서 “이번 작품이 제가 주연한 영화 중 비중이 가장 작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에게 이미지 변신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제 마음대로 되나요? 비슷한 캐릭터의 시나리오만 많이 들어와요. 스릴러, 액션 장르의 대부분은 아예 들어오질 않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는 왜 봉준호, 박찬욱 감독과 같은 유명 감독들과는 영화를 안 찍느냐’라고 물으실래 ‘제가 처음부터 줄을 잘못 닦다’고 말씀드렸죠.”

차태현은 ‘국민 호감 배우’이기는 하지만 ‘홍행 보충 배우’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작 중에 ‘과속스캔들’은 820만명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490만명을 동원했지만, ‘엽기적인 그녀’는 7만7000명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기도했다.

“홍행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한지는 오래됐어요. ‘엽기적인 그녀’, ‘연애소설’이 연이어 흥행이 잘됐고, 그다음에 ‘첫사랑 사수 궤기대회’를 찍었는데, 평가가 좋지 못했죠. 그 뒤에 찍은 ‘해피

로 크리스마스’가 망하면서 제가 티격 파위가 있는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차태현은 영화를 찍을 때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영화 한 편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태현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실패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다시 출연해 마음의 빚을 다 갚았다고 했다.

차태현은 인터뷰 내내 자신을 한껏 낮췄다. 그의 이런 성격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데 재능이 있다. ‘안티팬’이 거의 없는 배우이기도 하다.

차태현은 그래도 최근 뜻하지 않는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는 차태현을 응원하기 위해 ‘사랑하기때문에’ VIP 시사회장을 찾은 박보검, 조인성, 송중기, 김우민, 이광수 등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차태현은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차태현도 이제 늙어서 괜히 잘나가는 배우 옆에서 친한 척한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 저도 이제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 영화 ‘신과 함께’를 촬영 중인 차태현은 아직 차기작은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작품이 끝나면 연이어 들어갈 다른 작품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하고요. 제 캐릭터 자체는 비슷할 수 있었지만, 장르라도 변화를 줘보자는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말많고 탈많은 대중상 주인공 없는 반쪽 영화제 전략

내부 갈등 등 우여곡절 개최
시상식 열흘전 후보작 발표
해의촬영 등 배우 대거 불참



남우주연상 이병헌(내부자들)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대중상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그러나 영화제의 수상자들이 해의촬영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하면서 작년에 이어 주인공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중상영화제 시상식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이병헌(내부자들)과 손예진(덕혜옹주)은 각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병헌은 수상 소감에서 “상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지금은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대중상이 그동안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손예진이 이날 촬영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비롯해 ‘시상식의 꽃’인 다른 배우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우주연상 후보인 광대원(곡성), 최민식(대호), 하정우(터널), 송강호(밀정)가 불참했다.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터널), 심은경(넌 기다리며), 강예원(날 보러와요)도 참석하지 않았다.

‘밀정’의 엄태구와 ‘덕혜옹주’의 라미란은 각각 남조연상을 받았지만 역시 촬영 등을 이유로 대리 수상자가 상을 받아갔다.

‘덕혜옹주’는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의상상, 음악상을 받았지만 수상자 전원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곡성’도 신인여우상(김환희)을 비롯해 녹음상, 편집상, 조명상, 촬영상 등 5관왕에 올랐지만 김환희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자들은 불참했다.

올해 대중상 영화제의 파행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겪은 끝에 시상식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서야 후보작을 발표했다. 연말 일정까지 스케줄이 잡혀있던 배우들의 참석이 애초

쉽지 않았던 셈이다.

대중상영화제는 1962년 제1회 시상식이 열린 이래로 꾸준히 유지된 국내 대표 영화 시상식 중 하나다. 그러나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간 내부 갈등과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대중상영화제도 내부 갈등 끝에 뒤늦게 개최가 확정됐지만, 영화인들의 신뢰를 잃어 총 29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데 그쳤다. 올해 최고 흥행작인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비롯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이준익 감독의 ‘동주’ 등은 출품 자체를 하지 않아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53회 대중상 수상작 목록.

- ▲최우수 작품상=‘내부자들’ ▲감독상=우민호(내부자들) ▲남우주연상=이병헌(내부자들) ▲여우주연상=손예진(덕혜옹주) ▲남우조연상=엄태구(밀정) ▲여우조연상=라미란(덕혜옹주) ▲신인 남자 배우상=정가람(4등) ▲신인 여자 배우상=김환희(곡성) ▲남우이정상=김희진(인천상륙작전), 최리(귀향) ▲신인감독상=조정래(귀향) ▲의상상=권유진·임승희(덕혜옹주) ▲미술상=조화성(밀정) ▲음악상=최용락·조성우(덕혜옹주) ▲녹음상=김신용·박용기(곡성) ▲영화발전 공로상=윤삼욱 ▲기술상=조용성·황효근·곽태용·정도안·김태의(대호) ▲편집상=김선민(곡성) ▲조명상=김창호(곡성) ▲촬영상=홍경표(곡성) ▲기획상=김원국(내부자들) ▲시나리오상=우민호(내부자들) ▲인기상=이범수(인천상륙작전)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송년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스페셜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다시, 첫사랑) (재)	00 불어라 미몽아 (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쇼(드)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숨터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양코르 MBC 다큐프라임	20 나홀로 세계여행 시즌2 55 닥터 365
2	00 2016 전국 남녀 스포츠 선수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세상발전 유레카 (재) 55 닥터 365
3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55 튜튼생태체조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아)하 동물탐대 2 55 내일은 인제나 푸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연말 결산 누가 누가 잘하나 왕중왕전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파파독 플러스 30 중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30 안녕 자두야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특별생방송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막읍시다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창사 55주년 특집 MBC와 좋은 친구들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2016 KBS 가요대축제 1~2부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2016 MBC 방송연예대상	
10	00 KBS 스페셜 55 KBS 스페셜 감성과학 프로젝트 ‘환생’ 2부작		50 2016 MBC 방송연예대상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 전설은 계속된다!)
11	00 숨터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1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건강보고, 수산물 안전합니까)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영상앨범 산	30 MBC 뉴스 24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 배대(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연애)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안세경의 테리마수, 우유푸딩)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정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월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기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오솔상자 15:45 코코코코 16:15 두디다콩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 1~4 19:00 (국제공동제작) baby on the way2 - 내 동생은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땅, 남동주 탐험 - 한여름의 황홀한 탐험) 21:30 한국기행 (우리는 겨울바다로 간다 - 바다가 말하기를)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부모고시 - 4교시)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다들기에 속는 이유는?)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 (음 12월 1일 乙酉)	
子	48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60년생 알찬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 72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도 있으나, 84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하겠다. 행운의 숫자 : 43, 15	午	42년생 확신이 없다면 삼가라. 54년생 가는 곳마다 번기니 세상 살맛 날 것이다. 66년생 추진하던 일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파하지 마라. 78년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36
丑	49년생 길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보라. 61년생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73년생 성심을 다한다면 기쁨 고 이루어지리라. 85년생 숙단하지 말고 과장 효과까지 예견하고 행동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4, 85	未	43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유익하다. 55년생 호조를 띠면 전진해 보아라. 67년생 맺 고집의 노력을 경주해야 민화할 수 있을 것이다. 79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망설이지나 할리화 시켜라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87
寅	50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 62년생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74년생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하지 않아야 하는 나라. 86년생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중 넘겨라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밝히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24	申	44년생 단순한 비교는 불만만 더 할 뿐이다. 56년생 강운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되라. 68년생 강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능률적이다. 80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7, 89
卯	51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3년생 이전하거나 확장해도 된다. 75년생 아무리 아깝고 잊혀 지지 않는 다 할지라도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87년생 근년에 충실했을 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86	酉	45년생 꾸준해야 실효적인을 인식해야 한다. 57년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69년생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옳다. 81년생 가치와 실익의 관점에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1, 37
辰	40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52년생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64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마라. 76년생 속아서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임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68, 04	戌	46년생 혁신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시기이니라. 58년생 먼 말해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될 것이다. 70년생 듣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82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1, 22
巳	41년생 윗리를 파악한다면 정국을 저를 수 있다. 53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65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77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니라. 89년생 비슷한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27	亥	47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59년생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스러더라도 참는 것이 덕일지나 부드럽게 화합하라. 71년생 길사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83년생 처음부터 점검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3, 2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경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